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구 현 영¹⁾ · 박 현 숙²⁾ · 장 은 희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행복은 중요한 삶의 목표이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Diener & Diener, 1995). 인지적 측면에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감인 삶의 만족도를 말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행복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과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말한다(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즉 행복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각한 삶의 여건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다고 느낀다(Kim, Kim, Cha, Lim & Han, 2003; Pavot & Diener, 1993).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이 많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며,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Whaley & Wong, 1997),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Lee, 2003; Hyun, Lee & Park, 2003). 간호사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이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극복하면서 발달 단계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불변하는 고정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므로(Fujita & Diener, 2005),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가 개인이 삶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직접 평가하기 어려우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Kim, et al., 2003; Diner & Fujita, 1995).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삶의 만족도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특성 등 개인적인 자원과 관련이 더 높다는 것이다(Diner & Fujita, 1995; Diener & Seligman, 200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내적 특성으로 자존감을 들 수 있다(Lee, Lee, Jung & Won, 2002; Hong, Yi & Park, 2000). 자존감은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인간 행동의 기본 동기이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다(Lee & Chung, 1999). 자존감이 낮은 경우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고,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삶에

주요어 : 청소년, 삶, 만족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3) 영남이공대학 간호과 교수

투고일: 2005년 9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1월 23일

만족하는 정도도 낮다(Pyon & Kang, 2002). 선행 연구들(Lee, et al., 2002; Hong, et al., 2000)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과 순상관 관계가 있어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 적대감을 들 수 있는데,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게 냉소와 불신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며, 언어나 신체로 공격하여 해를 가하려는 것이다(Barefoot, et al., 1991; Pyon & Kang, 2002). 청소년기는 신체적 급성장과 내분비계의 변화로 감정의 극심한 동요를 겪는 시기이며,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Whaley & Wong, 1997). 이로 인해 청소년은 냉소적이 되기 쉽고,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분노하며,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적대감은 청소년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대인 관계를 방해한다. 청소년기는 친구나 또래 집단을 비롯한 대인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감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가설적·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구체적 사고나 현실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를 넘어선 가능성을 생각하는 시기이다(Whaley & Wong, 1997).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미래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에게 주어질 미래는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며, 정해진 것이 별로 없고, 불확실하다. 청소년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생활에도 만족을 느끼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때 현재의 삶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절망감은 자신과 미래의 삶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정의되고, 어떠한 희망도 바랄 수 없다고 여겨 모든 희망을 버리게 된 느낌이며, 무능감, 무력감, 실망, 포기가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연속적인 상태이다(Kim & Cho, 1992). 즉 절망감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나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인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문제와 병리적 특성을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청소년의 긍정적인 힘을 찾아내어 강화시킨다면,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적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특성인 삶의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특성은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 청소년기의 발달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작용할 것이며(Kim & Kim, 2004; Lee, 2003), 청소년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 2, 3학년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대상자가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다.

청소년의 성별, 학교 계열, 학년을 고려하여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1곳,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1곳,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1곳, 실업계 남자 고등학교 1곳에서 같은 수의 1, 2, 3학년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 수준(α 는 .05, effect size는 중간 정도로 .3, 검정력($1-\beta$ 은 .8로 설정하였을 때 88명으로 계산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95명을 성별, 학교 계열, 학년별 목표 인원으로 하였고, 총 1,140명이 목표 인원이었다.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1057명(92.7%)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Pavot과 Diener(1993)가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Hong 등(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연령 집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졌으며, 선행 연구(Koo & Park, 2005; Hong et al., 2000)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5개 문항이고, 7점 Likert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분포는 5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9-.89이었고, 도구를 번안한 Hong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다.

●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73)의 자존감 도구를 Jon(197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며(최저 1점에서 최고 4점), 부정 문항은 점수를 역산 처리하였다. 자존감 점수 분포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다.

● 적대감

적대감은 Derogatis(1977)가 Hopkins symptom checklist (HSCL)를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klist 90을 Kim, Won 및 Kim(1978)이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표준화한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 중 하위 척도인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문항이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최저 0점에서 최고 4점)이다. 점수 분포는 0점에서 2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에게 표준화한 Kim 등(197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다.

● 절망감

절망감은 Beck(1967)이 개발한 Hopelessness scale을 Won(198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연령 집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졌다. 이 도구는 20문항(10개의 긍정적인 문항, 10개의 부

정적인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이며, 부정 문항은 점수를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 분포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절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93이었고, 도구를 번안한 Won(198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0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은 기술 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추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이 49.2%, 여학생이 50.8%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50.8%,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49.2%였으며, 1학년생이 33.3%, 2학년생이 33.0%, 3학년생이 33.7%였다. 성적이 상위 30 백분위수 이내인 경우가 28.9%, 30-70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53.2%, 70 백분위수를 넘는 경우가 17.9%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56.9%, 없는 경우가 43.1%였다.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3.6%, 200-399만원인 경우가 49.9%, 400-599만원인 경우가 12.1%,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4%였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53.1%,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46.9%였고,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63.5%,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36.5%였다. 지난 1년간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 집단 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였다<Table 1>.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18.58±6.37점(최소 5점, 최대 3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5-35점임을 고려해볼 때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자존감은 평균 25.93±4.37점(최소 10점, 최대 4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0-40점에서 중간 정도였고, 적대감은 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57)

		N	%
Sex	Male	520	49.2
	Female	537	50.8
School type	Academic highschool	537	50.8
	Vocational highschool	520	49.2
Grade	1	352	33.3
	2	349	33.0
	3	356	33.7
Academic achievement	Below 30th percentile	305	28.9
	30th-70th percentile	563	53.2
	Above 70percentile	189	17.9
Religion	Have	601	56.9
	Haven't	456	43.1
Monthly income of family (million won)	Below 200	355	33.6
	200-399	527	49.9
	400-599	128	12.1
	Above 600	47	4.4
Conversation with parents	Do	561	53.1
	Don't	496	46.9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671	63.5
	Don't	386	36.5
Bullied by peer group	Experience	13	1.2
	Not experience	1044	98.8
Bully someone with peers	Experience	29	2.7
	Not experience	1028	97.3

9.02±4.92점(최소 0점, 최대 2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0-24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으며, 절망감은 평균 47.43±11.60점(최소 20점, 최대 10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20-100점에서 중간보다 낮은 정도였다<Table 2>.

〈Table 2〉 Satisfaction with life, self-esteem, hostility and hopelessness of subjects (N=1,057)

	Min.	Max.	Mean	S. D.
Satisfaction with life	5	35	18.58	6.37
Self-esteem	10	40	25.93	4.37
Hostility	0	24	9.02	4.92
Hopelessness	20	100	47.43	11.6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 계열, 학년,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삶의 만족도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높았고($t=2.746$, $p=.006$), 1학년생이 2학년생보다 높았으며($t=3.546$, $p=.029$), 성적이 상위 30 백분위수 이내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F=8.023$, $p=.000$). 종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t=2.995$, $p=.003$), 가족의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200만원 미만인 경우

〈Table 3〉 Satisfaction with life of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57)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life (Mean±S.D.)	t or F	p
Sex	Male	18.90 ± 6.95	1.609	.107
	Female	18.27 ± 5.73		
School type	Academic highschool	18.05 ± 5.89	2.746	.006
	Vocational highschool	19.13 ± 6.79		
Grade	1(a)	19.25 ± 6.36	3.546	.029 (a>b)
	2(b)	17.97 ± 6.30		
	3(c)	18.52 ± 6.39		
Academic achievement	Below 30th percentile(a)	19.59 ± 6.69	8.023	.000 (a>b,c)
	30th-70th percentile(b)	18.47 ± 6.00		
	Above 30th percentile(c)	17.27 ± 6.67		
Religion	Have	19.09 ± 6.49	2.995	.003
	Haven't	17.91 ± 6.15		
Monthly income of family (million won)	Below 200(a)	17.87 ± 6.59	3.725	.011 (d>a)
	200-399(b)	18.69 ± 6.00		
	400-599(c)	19.40 ± 6.52		
	Above 600(d)	20.53 ± 7.65		
Conversation with parents	Do	19.90 ± 6.14	7.341	.000
	Don't	17.09 ± 6.30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18.97 ± 6.31	2.618	.009
	Don't	17.91 ± 6.41		

보다 높았으며($F=3.725, p=.011$),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고($t=7.341, p=.000$),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t=2.618, p=.009$). 그러나 지난 1년간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이 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r=.545, p=.000$), 적대감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r=-.229, p=.000$), 절망감과 중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r=-.496, p=.000$). 자존감은 적대감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r=-.298, p=.000$), 절망감과 중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r=-.584, p=.000$), 적대감은 절망감과 약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r=.312, p=.000$)<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with life, self-esteem, hostility and hopelessness of subjects (N=1,057)

	Self-esteem	Hostility	Hopelessness
Hostility	-.298 (.000)		
Hopelessness	-.584 (.000)	.312 (.000)	
Satisfaction with life	.545 (.000)	-.229 (.000)	-.496 (.000)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 간에 $r=-.229-.545$ 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서, 세 변수 모두 독립 변수 투입 조

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학교 계열, 학년,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어서, 이들 변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들 간에 $r=-.584-.312$ 의 상관 관계를 보여 설명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65-.99의 값을 나타냈고, 분산 팽창 요인도 1.01-1.56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의 확인 후 잔차 분석을 위해 더빈 왓슨 검정과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더빈 왓슨 값이 1.815이어서 설정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ok's D 검정 결과에서도 1,057명 모든 관찰치의 값이 0.05이하를 보여 모든 관찰치를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즉 자존감, 적대감, 절망감, 학교 계열, 학년,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 절망감, 학교 계열(실업계),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월수입(200만원 미만), 종교(없음)였고, 삶의 만족도의 37.8%를 설명하였다. 특히 자존감과 절망감은 설명력이 큰 요인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과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 적대감 및 절망감과 역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의 중요성(Diner & Fujita, 1995)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 절망감, 학교 계열,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월수입, 종교였고, 이들 요인은 삶의 만족도의 37.8%를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여러 선행 연구(Diener & Diener, 1995; Lee et al., 2002; Hong, et al., 2000)에서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순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life of subjects (N=1,057)

Variables	Beta	R ²	Cum. R ²	F	p
Self-esteem	.529	.297	.297	445.744	.000
Hopelessness	-.154	.048	.345	277.724	.000
School type (vocational highschool)	1.901	.018	.363	199.927	.000
Conversation with parents	1.022	.007	.370	154.203	.000
Monthly income of family (below 200million won)	-.997	.005	.375	126.027	.000
Religion(have)	.681	.003	.378	106.173	.000

는 많은 사회와 문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Lee, Park과 Park(2001)에 의하면,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더욱 안정적이고, 학업 성취 수준이 높으며, 능동적이어서, 자존감은 자신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Kim과 Kim(2004)는 청소년의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자존감을 들었고, Pyon과 Kang(2002)도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자존감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Kim & Kim, 2004; Lee, et al., 2002; Hong, et al., 2000; Pyon & Kang, 2002)에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보호 요인으로 자존감을 제시하면서, 자존감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방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절망감이었는데, 절망감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 우울의 핵심 특성이다(Kim & Cho, 1992). 절망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Kim & Kim,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3)의 연구에서 절망감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 Kim과 Kim(2004)의 연구에서 절망감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절망감을 낮추고, 자신과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 계열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계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랐다. 학교 계열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과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삶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Lee & Chung, 1999; Lee, 2003)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부모와의 대화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 행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Park & Koo, 2005; Sohn, 2002)와 일관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해가는 시기이면서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여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유대감이 약한 경우에 적응 문제를 갖는다(Sohn, 2002). Lee(2003)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때와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행복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월수입이 낮은 경우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1996)의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Park(2005)의 연구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던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한국 성인에게 경제 수준은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Kim et al., 2003), 청소년은 가족의 경제 수준에 따라 가족 기능과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Moon, 2004; Sohn, 2002)와도 맥락을 같이 하여, 가족의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종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소년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 Kim 등(2003)은 하위 척도에 종교 항목을 넣으면서, 종교의 중요성을 제시했는데,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종교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학년, 성적, 친구와의 대화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학년 생이 1학년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삶에 대한 만족 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적이 높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대부분의 생활이 학교생활이고, 학업 성취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Lee & Chung, 1999), 청소년이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정서적으로 독립해가면서 친구와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자신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데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Whaley & Wong, 1997).

청소년은 또래의 인정이나 수용에 민감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Kim, Kim & Kim, 2005).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래와 나누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교우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교우 관계 형성을 도와야 하겠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2곳과 실업계 고등학교 2곳에 다니는 1, 2, 3학년생 1,057명에게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적대감 및 절망감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18.58점이었고, 자존감은 평균 25.93점, 적대감은 평균 9.02점, 절망감은 평균 47.43점이었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 계열, 학년,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 적대감과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절망감과 중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 절망감, 학교 계열,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월수입, 종교였고, 삶의 만족도의 37.8%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고, 적대감과 절망감이 낮을수록 삶에 더욱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존감과 절망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절망감을 낮추는 중재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무작위 표집 방법에 의한 반복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를 기초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적대감과 절망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refoot, J. C., Peterson, B. L., Dahlstrom, W. G., Siegler, I. C., Anderson, N. B., Williams, R. B. (1991). Hostility patterns and health implications. *Health Psychol*, 10, 18-24.
- Beck, A. T. (1967). *Depression*, New York, Harper & Row Inc.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Derogatis, L. R. (1977).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Johns Hopkins University.
- Diener, E., & Diener, D.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 Pers Soc Psychol*, 68(4), 653-663.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 Pers Soc Psychol*, 68(5), 926-935.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 Sci*, 13(1), 81-84.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 Pers Soc Psychol*, 88(1), 158-164.
- Han, Y. S. (1996). *Study on youth life satisfaction by environment: Cas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 Hong, Y. L., Yi, G. E., Park, H. S. (2000).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life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J Korean Comm Nurs*, 11(2), 333-346.
- Hyun, M. Y., Lee, J. E., Park, S. N. (2003). A study on the adolescents' hope and mental health.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2(2), 116-123.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 Kim, H. S., Cho, M. Y. (1992).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in patients admitted to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J Korean Acad Nurs*, 22(4), 620-635.
- Kim, K. L., Won, H. T., Kim, K. Y. (1978). Standardization study of symptom checklist-90 in Korea I: Characteristics of normal respons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7(4), 449-458.
- Kim, M. S., Kim, H. W., Cha, K. H., Lim, J. Y.,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 Health Psychol*, 8(2), 415-442.
- Kim, S. G., Kim, Y. H., Kim, M. H. (2005). Conquering process of the group-bullies among teenagers. *J Korean Acad Nurs*, 34(3), 458-466.
- Kim, T. H., Kim, J. H.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Korean J Counsel & Psychotherapy*, 16(3), 465-490
- Koo, H. Y., Park, H. S. (2005). Levels of and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n adolescent.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3), 322-329.
- Lee, J. E., Park, S. N., Park, H. R. (2001). The effect of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adolescents on hop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7(1), 74-84.
- Lee, K. A., Chung H. H. (1999).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s-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orean J Counsel & Psychotherapy*, 11(2), 213-226.
- Lee, M. R. (2003). Daily contextual variations in levels of adolescent happiness. *Korean J Develop Psychol*, 16(4), 193-209.
- Lee, Y. J., Lee, K. Y., Jung, M. S., Won, Y. B. (2002). The relationship with physical self-concept on the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J Sport & Leisure Stud*, 17, 319-327.
- Moon, S. T. (2004). How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depending on school types influencing the adap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gricul Edu*, 36(2), 65-82.
- Park, H. S., Koo, H. Y.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hostility of Korean adolescents by gender. *Korean J Counsel*, 6(3), 875-886.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 Assess*, 5(2), 164-172.
- Pyon, B. K., Kang, S. K. (2002). A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hostility. *Korean J Youth Stud*, 9(3), 269-291.
-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s*, 16, 829-860.
- Sohn, J. N. (2002). A study on identification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type in boys highschool students by smoking behavior.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1(1), 78-88.
- Whaley, L. F., & Wong, D. L. (1997).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5th ed. St. Louis: Mosby.
- Won, J. S. (1987). *The correlation among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stress and hopelessness in the patients on hemodi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Koo, Hyun Young¹⁾ · Park, Hyun Sook¹⁾ · Jang, Eun Hee²⁾

1)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Department of Nursing, Yung 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em.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057 adolesce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atisfaction with life, self-esteem, hostility and hopelessnes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 Satisfaction with life for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type, grade, scholastic achievement, religion, monthly income of family, conversation with parents and conversation with friends.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s correlated with self-esteem, hostility and hopelessness. Significant predi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s were self-esteem, hopelessness, school type, conversation with parents, monthly income of family and religion, and these predictors accounted for 37.8% of the variance in satisfaction with life.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s is influenced by self-esteem, hostility and hopelessness. Therefore when nursing interventions are develope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s, these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Key words :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 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